

<번역 논문>

## 신약성서 최신 그리스어 본문(NTG<sup>28</sup> 및 GNT<sup>5</sup>)이 번역에 미치는 영향

빌슨 솔츠(Vilson Scholz)\*

조재천 번역\*\*

20세기 초부터 성서공회에 연계된 번역팀들은 우리가 요즘 ‘비평본문’이라고 부르는 그리스어 신약 본문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1904년 대영성서공회는 수용본문(*Textus Receptus*) 대신 네스틀레의 그리스어 신약성서 제4판을 표준으로 채택하고 번역을 위한 대본으로 추천했다(2004년 세계성서공회 배경 논문, “Scripture Translation and the Churches”, 5쪽 각주 8). 여기에 더해 성서 번역자들은 최신 원문 판본을 선호하는 경향도 보인다. 그래서 새로운 판본이 출판되면 성서 번역이나 기존 번역의 개정 번역에 종사하는 이들은 그것을 즉각 사용하려고 한다.

2012년 독일성서공회는 그리스어 신약성서 네스틀레-알란트 본문의 스물여덟 번째 판본을 출판했다(NTG<sup>28</sup>). 2년 후 2014년, NTG<sup>28</sup>과 동일한 본문을 가진 UBS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제5판이 나왔다(GNT<sup>5</sup>).<sup>1)</sup> 만약 번역위원

\* 미국 Concordia Seminary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Th.D.)를 받음. 브라질 Seminario Concordia와 ULBRA(Lutheran University of Brazil) 교수 및 미국성서공회 번역자문위원 역임. [vscholz@uol.com.br](mailto:vscholz@uol.com.br). Vilson Scholz, “The Newer Greek Text of the New Testament (NTG<sup>28</sup> and UBS<sup>5</sup>) and Its Implications for Translation”, *The Bible Translator* 72:3 (2021), 284-293.

\*\* University of Notre Dame에서 CJA(Christianity and Judaism in Antiquity)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전주대학교 신약학 조교수. [jcho@jj.ac.kr](mailto:jcho@jj.ac.kr).

1) [역주] 네스틀레-알란트(Nestle-Aland) 판본은 독일성서공회에서 발행하는 그리스어 신약성서 비평본문이다. 에버하르트 네스틀레(Eberhard Nestle)가 1898년 초판을 발행한 이래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1993년에 제27판, 2012년 제28판이 나왔다. 미국성서공회(United Bible Society, 줄여서 UBS) 판본은 네스틀레-알란트 판본과 동일한 본문을 담고 있지만 그보다 2-3년 늦게 출판된다(UBS 제5판의 경우 2014년에 출판됨). 두 판본은 본문의 구성에 있어서

회가 이 새로운 판본들을 사용하기로 한다면 번역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 영향은 중대한 것일까? 신약성서 번역에 있어 그러한 영향의 중요성을 규명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개별 구절에 있어서 각 판본 편집자들의 결정을 평가하는 것은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난다.

첫째, 번역자들과 번역팀들은 이 새로운 판본들이 이전 판본들과 분명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일단 그 차이들은 공동서신에 국한된다(야고보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요한1·2·3서, 그리고 유다서). 독자들은 NTG<sup>28</sup> 및 GNT<sup>5</sup>의 서론(각각 50\*-51\*쪽과 2\*-4\*쪽)에 그 본문들, 그리고 그 본문들에 딸린 비평장치에 관한 설명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NTG<sup>28</sup> 편집자들에 따르면 새 본문은 27판과 서른네 군데에서 달라졌다. 표가 하나 제시되었는데 거기에는 해당 구절의 NTG<sup>27</sup>과 NTG<sup>28</sup> 본문이 병행해서 대비되어 있다. 반면, GNT<sup>5</sup>에는 본문이 서른세 군데에서 달라졌다고 되어 있다. 개수 하나가 다른 이유는 GNT<sup>5</sup> 편집자들이 베드로전서 2:25에 일어난 사소한 철자법 변화(ἀλλά가 ἄλλ'로 바뀐 것)를 변화 항목으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sup>2)</sup>

NTG<sup>28</sup> 및 GNT<sup>5</sup>가 본문에 있어서 NTG<sup>27</sup> 및 GNT<sup>4</sup>와 달라진 구절은 다음과 같다: 야고보서 1:20; 2:3, 4, 15; 4:10; 베드로전서 1:6, 16(2x); 2:5, 25; 4:16; 5:1, 9, 10; 베드로후서 2:6, 11, 15, 18, 20; 3:6, 10, 16(2x), 18; 요한1서 1:7; 3:7; 5:10, 18; 요한2서 1:5, 12; 요한3서 1:4; 유다서 1:5, 18(2x).

대본에 일어난 모든 변화가 번역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로저 오맨슨(R. O'manson)이 그의 *A Textual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에서 거듭 지적했듯이 UBS 그리스어 신약성서에 제시된 1,400여 개의 이문 중 많은 것들이 번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보다 역동적인 성격의 번역의 경우에 특히 그렇다(오맨슨의 책은 GNT<sup>4</sup>에 기반했지만 GNT<sup>5</sup>에 있어서도 그의 관찰은 유효하다). 많은 경우, 번역자들이 (원문의 기본 본문이나 이문 중) 어떤 것을 선택하든 번역은 같아진다는 말이다. 이 현상은 NTG<sup>28</sup> 및 GNT<sup>5</sup>

---

약간 다르고 비평장치의 내용과 구성에 있어서도 다르다. 일반적으로 네스틀레-알란트 판본은 신학 연구와 수업을 위해 적합하고 UBS 판본은 성서 번역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을 염두에 두었다고 여겨진다. 이 논문에서 저자가 네스틀레-알란트 판본 대신 UBS 판본에 기초해서 논지를 전개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말로 지칭할 때 네스틀레-알란트 판본은 일반적으로 “네스틀레-알란트 제28판”처럼 음역한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두 판본을 각각 NA28, UBS5라고 표기했지만, 나는 이 번역에서 「성경원문연구」 논문 투고 규정에 따라 NTG<sup>28</sup>과 GNT<sup>5</sup>로 바꾸어 표기했다.

2) [역주] 2012년에 발행된 NTG<sup>28</sup> 초판에는 서른네 군데 본문이 변경된 것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2014년에 발행된 NTG<sup>28</sup>의 수정3판(3rd Corrected Printing)에는 뻔전 2:25가 빠지고 서른세 군데로 되어 있다. 따라서 GNT<sup>5</sup> 편집자들이 이 사소한 철자법 변화를 본문의 변경으로 간주하지 않았다고보다는 NTG<sup>28</sup> 수정3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 공동서신 본문에 일어난 몇몇 변화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야고보서 4:10에 첨가된 관사(κυρίου 대신 τοῦ κυρίου)는<sup>3)</sup> 어떤 번역에도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당연한 이유 때문에, 현재까지<sup>4)</sup> 출판된 역본들이나 역본 개정판들 중 이 새로운 본문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많지 않다. 특별히 언급할 가치가 있는 역본 하나는 2012년 독일에서 출판된 BasisBibel(www.basisbible.de)이다.<sup>5)</sup> 이 역본은 <대비평본>(Editio Critica Maior)의 첫 번째 출판 부분을大本으로 삼았는데, <대비평본>의 첫 출판 부분인 공동서신 본문이 NTG<sup>28</sup> 및 GNT<sup>5</sup>에 사용되었다.<sup>6)</sup>

아래에서 나는 NTG<sup>28</sup> 및 GNT<sup>5</sup> 본문의 공동서신 부분 중, 내가 판단하기에 번역에 있어서 영향을 줄 만한 구절들을 검토할 것이다. 그 결과 서른네 구절 중 절반인 열일곱 구절에 일어난 본문 변화가 신약성서 번역자들과 개정자들에게 일정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제안할 것이다.

**야고보서 2:37):** 이 구절의 새로운 본문에서 부사 ‘거기’(그리스어 ἐκεῖ)의 위치가 뒤로 옮겨졌고, 본문 속 인물(야고보서의 독자)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는 말의 두 번째 부분에 놓이게 되었다. 즉,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 아래에 앉으라”에서 “너는 서 있든지 거기 내 발 아래에 앉으라”처럼 된 것

3) [역주] 저자는 원 논문에서 그리스어 원어 표기 대신 로마자 음역을 사용했지만 나는 「성경 원문연구」 논문 투고 규정에 따라 모든 원문 인용 부분을 그리스어 원어로 바꾸어 표기했다.

4) [역주] 여기서 “현재”는 이 논문이 출판된 2021년을 말한다. GNT<sup>5</sup>가 출판된 지 7년밖에 안 되었으므로 그것을大本으로 삼아 새로 번역하거나 개정한 성서 역본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 저자가 말하는 “당연한 이유”이다.

5) [역주] BasisBibel(독일어 basis는 ‘기본’, ‘토대’ 등을 뜻함)은 2010년 신약이 먼저 출판되었고, 2012년 시편에 이어 2021년 구약까지 성서 전체가 출판되어 나왔다. 이 역본은 어린이, 청소년, 지역 사회의 비기독교인 등 ‘성경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을 위해 가독성을 높이면서도 최신 성서학 연구 성과를 반영한 정확한 성서 본문을 담으려고 했다. BasisBibel에 대한 기본 정보와 본문을 접할 수 있는 웹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다(저자가 제시한 주소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https://www.die-bibel.de/bibeln/unsere-uebersetzungen/basisbibel>(2023년 7월 2일.).

6) [역주] <신약성서대비평본>(이하 줄여서 <대비평본>, *Novum Testamentum Graecum Editio Critica Maior*)은 1970년 독일 뮌스터 소재 신약성서원문연구소(Institut für neutestamentliche Textforschung)에서 쿠르트 알란트(Kurt Aland)의 주도로 시작한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현전하는 사본적 증거들을 모두 수집해서 디지털화하고 분석, 평가하여 새 비평본문을 만들고 그것에 부속하는 비평장치를 개정, 증보하는 작업이다. 전체 다섯 권(volumes) 중 2013년 제4권 공동서신이 첫 번째로 나왔고, 2017년 제3권 사도행전에 이어 2021년 제1권 복음서 중 마가복음이 출판되었다. 신약 전체 대비평본은 2030년까지 완성될 예정이다.

7) [역주] 이 논문에서 다루어지는 열일곱 구절에 대해서,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성경전서 개역개정판』(1998)의 번역 본문을 제시할 것이다. 본문 중 굵은 글씨는 새 비평본문의 변화가 일어난 지점을 지시한다.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이다(강조는 저자의 것). 이것은 미미한 변화이지만 번역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현재 CEV에는 “tell the one who is poor to stand **at the side** or sit on the floor”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tell the one who is poor to stand or sit **there** on the floor”라고 바뀌게 될 것이다. 이 변화에 대해서 GNT<sup>5</sup> 편집자들은 {C} 등급을 주었다.<sup>8)</sup>

**베드로전서 4:16**<sup>9)</sup>: 여기서 편집자들은 *ὀνόματι*(“이름”)를 *μέρει*(“부분”)로 대신했는데, 이 변화는 (주로 중세 후기에 필사된) 몇몇 사본들과 비잔틴 본문(Byz)을 따른 것이다. 이렇게 바뀐 본문의 번역은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가 아니라, (KJV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가 될 것이다. BasisBibel은 “Vielmehr soll er dadurch die Herrlichkeit Gottes mehren”(“하지만 차라리 그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한다”)이라고 옮겼다. 이 변화를 GNT<sup>5</sup> 편집자들은 {B} 등급으로 평가했다. 번역자들은 GNT<sup>5</sup>에 새롭게 더해진 비평장치 항목에 유의해서 번역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5:1**<sup>10)</sup>: 이 구절에서는 본래 본문에 있던 *οὕτως*(“그래서, 그러므로”)이 그리스어 관사의 복수 대격형 *τούς*로 대체되었다. 이전 경우(벧전 4:16)처럼 여기서도 과거는 “다시 미래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결과적으로 비잔틴 본문이 채택된 것이다. 하지만 무심코 본문을 읽는 사람은 이 변화를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짧은 한 단어가 바뀐 사소한 변화이기도 하고, 이 항목에 대한 비평장치나 이문 등급 표시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UBS 그리스어 신약성서 이전 판에도 없었고,

8) [역주] GNT 판본의 비평장치(본문 아래에 있는, 개별 단어나 어구의 사본상의 문제를 설명하는 주석)는 네스틀레-알란트 판본에 없는 특별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번역상 문제가 될 만한 항목들을 다룰 때, 편집자들은 기본 본문으로 채택된 독법의 ‘확실성’을 {A}, {B}, {C}, {D} 네 등급 중 하나로 표시해 두었다. 등급이 매겨진 본문 내 각 항목에 대한 위원회의 논의 내용과 설명을 모아 펴낸 자료가 브루스 M. 메츠거(Bruce M. Metzger)의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이다(우리말로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이라는 제목으로 장동수 교수가 번역하여 대한성서공회에서 2016년 출판했다). 1971년 초판과 1975년 개정판은 GNT<sup>3</sup>에 연계되고 2005년 제2판은 GNT<sup>4</sup>에 상응한다(GNT<sup>5</sup>에 상응하는 개정판은 출판되지 않았다). 각 등급에 대한 메츠거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The letter {A} signifies that the text is virtually certain, while {B} indicates that there is some degree of doubt concerning the reading selected for the text. The letter {C} means that there is a considerable degree of doubt whether the text or the apparatus contains the superior reading, while {D} shows that there is a very high degree of doubt concerning the reading selected for the text” (*A Textual Commentary*, 초판 xxviii).

9) [역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0) [역주]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

제5판에도 없다. 성서 번역자도 서문에서 보았던 관련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기 십상이다. GNT<sup>5</sup> 서문이 권고하듯이, 독자가 이 변화된 항목에 대해 상세한 논의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NTG<sup>28</sup> 혹은 <대비평본>을 살펴보아야 한다. 과연 이 변화는 번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은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 이미 말한 대로 GNT<sup>5</sup> 난외주에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차이이기 때문이다. 문자적 번역을 추구하는 번역자들이 이 구절을 οὖν 대신 τούς라고 읽게 되면 기존 번역에 있던 “그래서”나 “그렇다면” 같은 말을 지울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그리스어 본문을 아주 문자적으로 번역하다 보면 결국 KJV(“The elders which are among you I exhort”)와 비슷하게 될 것이다<sup>11)</sup>. KJV가 대본으로 삼은 ‘다수 본문’은 곧 NTG<sup>28</sup> 및 GNT<sup>5</sup>에 인쇄된 새로운 그리스어 본문이 대본으로 삼은 비잔틴 본문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sup>12)</sup> 이 변화에 대해서는 GNT<sup>5</sup>의 비평장치에 아무 언급이 없기 때문에 어떤 등급도({A}, {B}, {C} 혹은 {D}) 매겨지지 않았다.

**베드로전서 5:14**<sup>13)</sup>: NTG<sup>26</sup> 이래 비평본문에서 이 구절은 Ἰησοῦ(“예수”)를 대괄호([ ])에 담고 있어서 그것을 포함해 번역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된다.<sup>14)</sup> 새로운 본문에서 이것은 대괄호 부분 없이 “그리스도 안에

11) [역주] 대부분 국역 성서에는 애초부터 οὖν이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에 KJV와 차이가 없는 상태였다(가톨릭 『성경』만 “그러므로”를 번역했다). 『개역개정』이 결과적으로 <대비평본>을 반영한 것처럼 되긴 했지만, 이는 <대비평본>이 비잔틴 본문을 채택했기 때문에 일어난, 의도하지 않은 성과이다(단,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2021)은 <대비평본>과 NTG<sup>28</sup> 본문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로 οὖν 없이 번역했다). 『개역개정』이 그 당시 최신 비평본문(GNT<sup>3</sup> 혹은 GNT<sup>4</sup>)을 대본으로 한 전면 재번역이 아니라, 기존 『개역한글』(1952)과 『성경개역』(1938)을 소폭 개정한 역본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국 『개역개정』이 대본으로 삼은 원문은 『성경개역』(1938)의 대본이라고 말해야 한다. 류대영 등에 의하면 그것은 네스틀레 제12판(1923)으로 추정된다.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 번역, 반포와 권서사업』(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35-36, 171 참조. 단, 류대영 등이 1923년 출판된 네스틀레의 본문을 ‘제14판’이라고 서술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1923년은 제12판이 출판된 해이고, 제14판은 1930년에 출판되었다.

12) [역주] 저자가 ‘다수 본문’(the Majority Text), ‘수용 본문’(Textus Receptus), ‘비잔틴 전승’(the Byzantine Tradition) 등 여러 용어로 지칭하는 신약성서 본문은 사실상 스테파누스(Stephanus, 본명은 Robert Estienne)가 출판한 ΤΗΣ ΚΑΙΝΗΣ ΔΙΑΘΗΚΗΣ ΑΠΑΝΤΑ(1550, 제3판)를 가리킨다.

13) [역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

14) [역주] 비평본문에 대괄호(bracket, [ ])가 처음 도입된 것은 NTG<sup>25</sup>(1963)였다. 기본적으로 대괄호는 원본인지 아닌지가 불확실한 어구나 단어를 본문에 표기할 때 사용한다. 독자는 대괄호를 통해 그 안에 담긴 어구의 원문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인지하는 한편, 대괄호에 묶인 독법이 다른 경쟁하는 이문들보다 선호된다는 사실 또한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그간 학자들 사이에서 대괄호의 정당성에 대해 비판이 없지 않았다. R. Aasgaard, “Brothers in Brackets? A Plea for Rethinking the Use of [ ] in NA/UBS”, *JSNT* 26:3 (2004), 301-321 참조.

서”로 바뀌었다. 비전문가가 그리스어 본문을 읽을 때 대괄호가 나오면 그것이 이전 판본에 없던 것을 새로 집어넣는 과정에 대괄호를 친 것인지, 아니면 있던 것이 불확실해져서 대괄호를 친 것인지 알기가 어렵다. 이 경우 네스틀레의 이전 판본에 Ἰησοῦ가 없었다가 NTG<sup>26</sup>에 와서 새로 더해지면서 대괄호에 넣은 것이다. 이 긴 본문은 비잔틴 본문에 의해 지지를 받지만(예를 들어, KJV에 “by Christ Jesus”라고 되어 있다), NTG<sup>28</sup>에는 들어오지 못했다. 이 변화가 그리 중대한 것은 아니다. 대부분 최신 역본들은(새로운 본문에 맞추어 개정되더라도) 이미 비평본문에 대괄호 부분을 무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번역을 해왔기 때문이다.<sup>15)</sup> 이 구절에도 GNT<sup>5</sup> 등급 표시가 없는데, 두 독법이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대비평본>의 견해에 따르기 위해서이다(“동등한 가치를 지닌 독법들”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아래 각주 31번 참조).

**베드로후서 2:6<sup>16)</sup>**: 이 구절에 있어서 다시 한번, 편집자들이 변경한 본문이 비잔틴 전승에서 발견되는 본문과 같아졌다. 즉, “**경건하지 않은(ἀσεβέσιν) 자들에게 일어날 일의 본보기**”가 “**후세에 경건하지 않게 처신할(ἀσεβείν) 자들을 위한 본보기**”로 바뀐 것이다. 이전 네스틀레-알란트 판본들(26판과 27판) 및 GNT<sup>4</sup>는 ἀσεβέ[σ]iv이라고 인쇄함으로써 두 가지 독법이 같이 드러나도록 했다. NTG<sup>28</sup> 및 GNT<sup>5</sup>의 “새로운” 본문은 이미 KJV(“those that after should live ungodly”)가 대본으로 삼았던 본문이다. 언뜻 보기에 이전 본문 “경건하지 않음”과 새로운 본문 “경건하지 않게 처신함”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의 윤리학적 논점이 담겨 있다. 그것은 상습적인 도둑과 한번 어떤 물건을 훔친 사람의 구분 문제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경건하지 않게 처신하는 자들”은 같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차이가 경미하더라도 번역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항목에 GNT<sup>5</sup> 편집자들은 {C} 등급을 주었다.

**베드로후서 2:11<sup>17)</sup>**: 이전 판본들(NTG<sup>27</sup> 및 GNT<sup>4</sup>)에서 이 구절에는 *παρὰ κυρίου*(그리스어 전치사 *παρά*와 그것의 목적어인 *κύριος*의 속격)가 들어 있었다. 그 의미는 “... 천사들도 **주로부터**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이끌어내지 않는다”이다. 하지만 많은 역본들이(예를 들어, RSV나 ESV) 그 본문을 따르지 않고 그것의 이문(비잔틴 본문의 독법이면서 새로운 비평

15) [역주] 이미 대부분 국역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번역되어 있다.

16) [역주] “...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17) [역주]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본문에 채택된 독법)인 *παρὰ κυρίῳ*를 따랐다. 전치사 *παρά*와 명사 *κύριος*의 여격이 결합해서 “주 앞에서”라는 뜻으로 번역된 것이다. 반면, BasisBibel은 ‘최신’ 본문(<대비평본>과 NTG<sup>28</sup>)을 대본으로 삼는다고 밝혔지만 이 구절에서 그 원칙을 깨고 이전 판본의 독법을 따라 번역했다(“주로부터”).<sup>18)</sup> GNT<sup>5</sup>는 이 항목에 등급을 매기지 않았는데, <대비평본>이 이 독법과 다른 이문(이 전치사구가 없는 독법)을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간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비평본>의 이러한 판단이 GNT<sup>5</sup>의 비평장치에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 같다.

**베드로후서 2:15<sup>19)</sup>**: 이 구절에서 분명 본문에 변화가 있었는데도 GNT<sup>5</sup>는 다시 한번 비평장치에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 변화한 항목은 *καταλείποντες*(현재 분사) 대신 들어온 *καταλίποντες*(부정과거 분사)이다. 그리스어 분사의 두 시제, 즉 현재와 부정과거 사이에 의미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 변화는 번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바른 길을 떠남”이 “미혹됨”에 앞서 일어나는지 아니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지를 살펴 번역하는 것이다. 현재 분사 형태를 대본으로 삼으면 “바른 길을 떠나면서 그들은 미혹된다”처럼 번역하고, 부정과거 분사 형태를 취하면 주동사의 시간보다 앞선 시간의 동작이나 사건을 표현하기 때문에 “바른 길을 떠난 후 그들은 미혹된다”처럼 번역하게 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현재와 부정과거 사이에 그런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몇몇 언어들에서는 그런 차이를 나타내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 언어들에서는 하나의 형태로 완결된 동작과 진행 중인 동작이 모두 표현되기 때문이다.

**베드로후서 2:18<sup>20)</sup>**: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받는” 사람들은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ὀλίγως] 피한 사람들”인가? 아니면 “참으로[ὄντως] 피한 사람들”인가? GNT<sup>4</sup>는 ὀλίγως(“겨우”)를 취하면서 거기에 {A} 등급을 주었다. 웨스트콧과 호르트(Westcott-Hort, 1881) 이래

18) [역주] 다시 한번, 『개역개정』과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다른 경로를 통해 동일한 결과에 도달했다. 전자는 아주 오래된 본문을 대본으로 삼았고, 후자는 가장 새로운 본문을 대본으로 삼았다. 다만,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이 대본으로 삼은 NTG<sup>28</sup>의 경우, “주 앞에서”와 그 전치사구가 없는 이문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다음 국역이나 개정 작업 시에 이 전치사구가 없는 이문도 “동등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번역자들이 명심해야 한다. 국역 중 유일하게 NTG<sup>27</sup> 본문에 충실한 번역이 가톨릭 『성경』에 나타난다(“천사들은 … 주님에게서 그들에 대한 모욕적인 판결을 끌어내지 않습니다”).

19) [역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브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

20) [역주] “그들이 …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비평본문은 줄곧 그 독법을 채택했었다. 새 본문은 ὄντως(“참으로”)를 채택하면서 {C}등급을 매겼다. 이 독법은 비잔틴 전승에 나타나고 따라서 루터의 번역과 KJV에도 나타난다. 이 새로운 비평본문에 따라 번역 또는 개정을 하려고 한다면, 그 결과 분명 꽤 오랫동안 어떤 역본에도 나타난 적이 없는 번역을 얻게 될 것이다.

**베드로후서 2:20<sup>21)</sup>**: 이 구절에서 ἡμῶν(“우리의”)은 비평본문에 원래 없었다가 개정되면서 본문에 들어오는 과정에 있었다. 오래된 비평본문들(예를 들어 웨스트콧과 호르트의 본문) 중 이 단어를 가진 판본은 전혀 없었는데 최근 판본들(예를 들어, NTG<sup>26)</sup> 대괄호와 함께 이 단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반면 새 본문은 이 단어를 제외했다. “우리의”가 없는 본문이 분명 더 어려운 독법이다(*lectio difficilior*). 고대이건 현대이건 베드로후서 2:20을 읽을 때 독자들은 “주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문구 앞에 “우리의”를 넣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짧고, 더 어려운 이 본문이 비잔틴 전승에 나타난다는 사실이 다소 놀랍다. KJV의 “the knowledge of the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가 그런 경우다. 중대한 문제가 걸린 것은 아니지만 번역은 약간 달라질 것이다. GNT<sup>5</sup> 편집자들은 “우리의”가 없는 본문에 {C}등급을 주면서 채택했다.

**베드로후서 3:6<sup>22)</sup>**: 독자들은 새로운 원문을 읽으면서 δι’ ὧν(전치사 διὰ에 이어 관계대명사 복수 속격이 온 경우)이 δι’ ὅν(전치사 διὰ에 이어 관계대명사 단수 대격이 온 경우)으로 바뀐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 결과 번역에 있어서 “그것들을 통해”가 “그것 때문에”로 바뀌게 된다. 기본 본문에서 탈락해서 이제 이문이 된 본문(δι’ ὧν)은 그 의미가 유동적이다.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멸망한 간접적 이유인 “그것들”이 무엇일까?<sup>23)</sup> 새로운 본문(δι’ ὅν)을 영어로 (선행사를 적시하지 않고서) 표현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 BasisBibel은 “Auf sein Wort hin ist auch die damalige Welt untergegangen”(“그의 말씀에 기초해서 당시의 세상 또한 멸망당했다”)라고

21) [역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

22) [역주] “**이로 말미암아** 그 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23) [역주] 여기에서 『개역개정』은 “이로 말미암아”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했고 다른 국역들은 원문의 ‘전치사+관계대명사’ 구를 아예 번역하지 않았다. 많은 영역본들은 “through/by these/which”처럼 모호한 대명사나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옮겼는데, NIV만 특이하게 “by these waters”라고 구체화했다. 국역 중에는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이 독보적이다. 그것은 새로운 본문을 반영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라고 옮겼다.



옳았다.<sup>24</sup>) 이것은 비평본문에 있어서 큰 변화이고 이 변화를 지지하는 사본이 많지 않다는 점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또한 이런 본문 형태는 어떤 현대 역본에도 나타난 적이 없었다(몇몇 불가타 성서 사본에 나오긴 하지만). 만약 번역위원회나 개정팀이 NTG<sup>28</sup> 및 GNT<sup>5</sup>를 따르기로 결정한다면 독자들은 분명 놀라게 될 것이다. 이 구절에 대해 GNT<sup>5</sup> 편집자들은 제4판에서 없던 새로운 비평장치 항목(혹은 각주)을 마련했다. 불행하게도 이런 조치는 다른 구절의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δι' ὧν에서 δι' ὅν으로의 변화에 매겨진 등급은 {C}이다.

**베드로후서 3:10<sup>25</sup>**: 이 구절 하반절이 어떻게 끝나는지는 신약성서 본문비평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 하반절은 이렇게 시작한다: “땅과 그 위에 있는 것들이 ...” 이어지는 서술부에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먼저, 가장 쉬운 독법이 비잔틴 전승을 비롯한 많은 사본들에 나타난다: κατακαήσεται(“불태워질 것이다”, KJV, RSV). 반면, 이전 판본의 비평본문(NTG<sup>27</sup> 및 GNT<sup>4</sup>)에는 εύρεθήσεται(“보일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이걸 매우 어려운 독법이고, 그래서 틀린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번역은 약간 의역을 해서 “will be exposed”(ESV)처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으로 이 독법이 더 구성적이다!<sup>26</sup>) 이제 새 비평본문은 그것을 οὐχ εύρεθήσεται(“보이지 않을 것이다”)로 바꾸었다. 그렇게 되면 “사라질 것이다”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어서 더 쉬운 독법이 된다. 이 독법은 한두 개 고대 역본들에 나타나는데, 정확히 말하면 6세기 시리아어 역본인 필록세누스(Philoxenus) 사본 몇 개와 콥트어 역본 두 개이다(사히디 역본[the Saidic]과 제5방언 역본[Dialect V]). 제5방언 역본의 경우, 사본 보존 상태가 너무 나빠서 글자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독법일 것이라고 추정될 뿐이다(그래서 비평장치에 <sup>vid</sup> 라는 표시가 있다). 이 독법에 매겨진 등급은 {C}이지만, {D}를 받았어야 할 것 같다. 만약 성서 역본 개정팀이 GNT<sup>5</sup> 본문에 따르게 된다면 이 부분을 읽게 될 독자는

24) [역주] 하지만 최신판 BasisBibel에는 벵후 3:6이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다: Durch beide, sein Wort und das Wasser, wurde diese Welt vernichtet, als sie vom Wasser überflutet wurde. 즉, 저자의 서술과 달리 새로운 그리스어 본문이 번역에 반영되지 않았다.

25) [역주] “...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26) [역주] 저자가 NTG<sup>27</sup> 및 GNT<sup>4</sup>의 독법을 신학적으로 더 ‘구성적’(constructive)이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신학에서 구성적 성격이라 함은 창의적이고 새로운 착상, 통찰, 개념을 자극하고 이끌어 내는 성질을 의미한다. 주님의 날에 어떤 방식으로 “땅과 그 위에 있는 것들이 드러날 것”인가? 그것들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과 다를까? 하늘에서 새로운 현실이 내려온다는 환상(요한계시록) 대신, 땅에 있는 현실이 새롭게 드러난다는 발상은 확실히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면이 있다.

분명 놀랄 것이다. (이상 서술은 이 구절의 사본학적 문제를 대략적으로 평가한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대비평본>과 그 결과물인 NTG<sup>28</sup> 및 GNT<sup>5</sup>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본격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은 이 논문의 목적을 벗어난다).

**베드로후서 3:16<sup>27)</sup>**: 이 구절은 베드로후서의 저자가 바울의 편지들을 언급한 구절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편지들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들을 곡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 들어 있던 *στρεβλοῦσιν*(동사 *στρεβλώω*의 현재형으로서 이 동사는 신약에서 여기에 한 번만 나온다)이 새 본문에서 *στρεβλώσουσιν*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되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 곡해할 것이다”처럼 번역된다. 아쉽게도 GNT<sup>5</sup>에는 독자에게 본문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비평장치 항목이 없다. NTG<sup>28</sup> 비평장치를 확인해 보면 편집자들이 이 독법으로 바꾼 근거가 파피루스 사본 72를 포함 열 개 정도의 사본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독법은 비잔틴 전승과 그 외 대다수 본문 전승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는 이 변화 자체를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고 이 새로운 본문이 장차 그에 상응하는 번역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그것은 이전 역본들에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BasisBibel은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Diejenigen … werden das falsch deuten. Und genauso werden sie es auch mit den übrigen Schriften tun”(“이런 사람들은 … 그것을 곡해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거룩한 글들에도 같은 일을 할 것이다”; 강조는 저자가 함). 이렇게 되면 저자는 자기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다가올 시대에 일어날 일을 예고한 것이 된다. GNT<sup>5</sup> 편집자들이 서문에서 “비평장치 항목이 없는 경우 대부분 … 본문의 변화가 번역과 석의에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지만 이 구절에서는 본문의 변화가 명백하게 번역과 석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GNT<sup>5</sup> 비평장치에는 이 독법을 언급한 항목 자체가 없기 때문에 등급도 매겨지지 않았다.

**베드로후서 3:18<sup>28)</sup>**: 필사자들은 신약성서 각 권이 끝날 때 “아멘”을

27) [역주] “...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역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번역에 사용한 ‘역지로 풀다’는 동사 *στρεβλώω*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다른 국역들처럼 ‘잘못 해석하다’, ‘곡해하다’ 정도의 번역이 더 낫다.

28) [역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더하곤 하는데 특히 결말이 축복이나 기원일 때 그렇다. 예상한 대로 대다수 사본에 베드로후서는 “아멘”으로 끝난다. 많은 역본들 역시 “아멘”을 가지고 있다.<sup>29)</sup> 비평본문의 이전 판본에 그 단어는 대괄호에 포함되어 있었다. 최소한 NTG<sup>26</sup> 이후로 그 단어가 본문에 포함되는 과정에 있었음을 독자들을 알아챌 수 있다. 이제 새 본문에 “아멘”은 본문에서 빠졌다. 그것이 제외되어야 할 증거는 네 개의 그리스어 사본, 두 개의 고대 역본(it<sup>z</sup> geo), 그리고 세 개의 교부 서술이다. “아멘”이 없는 독법이 분명 *lectio difficilior*이다. GNT<sup>5</sup>에서 그것은 {C}등급을 받았다.

**요한1서 1:7<sup>30)</sup>:** 이 구절에 초두에 있던 δὲ(“그러나”)가 새로운 본문에서 사라졌고, GNT<sup>5</sup>는 비평장치에서 이 변화를 다루지 않았다. 대신 독자는 ἐάν(“만약”)에 붙은 다이아몬드 표시(◆)를 보게 될 것이다. GNT<sup>5</sup> 서문(\*4)에 따르면, (새로운 그리스어 신약성서 본문으로 사용된) <대비평본> 제2판에 “병행배열”(split guiding line)이라는 것이 나타난다. 이것은 기본 본문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이문을 기본 본문과 함께 병행해서 배열하는 것이다.<sup>31)</sup> 이 이문은 NTG<sup>28</sup>의 비평장치에 언급이 되었지만, GNT<sup>5</sup>에는 되어 있지 않고 890쪽 부록에 따로 제시된 목록에 들어 있다. 이 “대안 독법 목록”은 <대비평본>에 병행배열로 나타나는(GNT<sup>5</sup>에는 다이아몬드로 표시된) 이문들을 모두 보여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록은 GNT<sup>5</sup>가 제공하지 않은 각주 항목을 보완한다. 요한1서 1:7의 경우, 기본 본문은 ἐάν이지만 그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

29) [역주] 국역 중 『개역개정』에 “아멘”이 없고,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에도 없다. 전자는 너무 오래된 원문을 반영한 탓이고, 후자는 가장 최신의 원문(NTG<sup>28</sup>)을 반영해서 없었다. NTG<sup>26</sup>와 NTG<sup>27</sup>를 반영한 다른 모든 국역과 영역본들은 “아멘”(Amen)을 가지고 있다.

30) [역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다”

31) <대비평본> 편집자들은 병행배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편집자들은 한 구절에 여러 이문이 나타날 때, 보통 그중 하나를 채택해서 초기 본문(initial text)으로 정한다. 하지만 어떤 구절에서는 모든 관련된 기준을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을 한 후에도 하나를 초기 본문으로 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하기 위해 후자의 상황에 적용하는 방식이 ‘병행배열’이다. 초기 본문이 될 만한 두 이문이 경쟁할 때 그것들을 모두 한 줄 안에 위아래로 나란히 배열하는 것이다. 그 이문들에 대해서 편집자들은 어떤 공식적인 등급을 매기지 않았다. 이문 중 어느 것이 초기 본문으로서 더 큰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중 하나가 뒷줄에 놓여야 하고, 그것이 a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 아래에 놓인 독법에 대해서는, 그것을 다른 이문들과 비교하거나 비평장치에 표시할 때, 거기에 다이아몬드(◆)를 붙여 구별한다”(Aland et al. 2013, 34). 이상의 설명을 검토해 보자. 우선, “병행배열”이 <대비평본> 내에서는 잘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한 줄에 두 이문을 위아래로 함께 두고 인쇄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병행배열 방식으로 인쇄할 수 없는) NTG<sup>28</sup> 및 GNT<sup>5</sup>의 독자들에게 이것은 다소 헷갈리는 설명이다. 게다가, 독자는 둘 중 위에 놓인 이문이 아무래도 더 선호되는 독법일 것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문”으로서 ἐάν δέ가 있음을 그 목록이 나타내 준다. 대다수 사본들은 δέ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누락하고 있는 사본들은 몇 개 되지 않는다. 요한1서의 이 단락에서 ἐάν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몇 개 연속되고 있는 와중에 ἐάν에 δέ가 이어서 함께 나오는 문장은 7절의 이 문장이 유일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δέ가 있고 없고에 따라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것은 긴밀하게 연관된 사태들을 이어서 서술할 때 사용하며, 그때 “그리고”와 거의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LN, 89.87). 하지만, 보통 그 단어는 대조의 표시로 쓰이며 “그러나”를 의미한다(LN, 89.124). 어느 경우든지, δέ는 앞 절과 모종의 논리적 연결을 만들어 낸다. 만약 이 구절에 δέ가 없으면, 앞 구절 내용과 무관한 새로운 생각이 펼쳐지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요한1서 5:10<sup>32</sup>**: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왔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신의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다.” NTG<sup>28</sup> 및 GNT<sup>5</sup>에서 이 구절에 있던 ἐν ἑαυτῷ(“자신의 안에”; 여기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를 가리킴)가 ἐν αὐτῷ(“그의 안에”;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킴)로 바뀌었다. BasisBibel은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Wer an den Sohn Gottes glaubt, hat in ihm die Aussage, die Gott als Zeuge gemacht hat”(“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증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그의 안에 가지고 있다,” 강조는 저자의 것). “자신의 안에”에서 “그의 안에”로 바뀜으로써 이 구절은 좀 더 기독교론적인 표현이 된 것이다. 이 구절 역시 GNT<sup>5</sup>에 {C}로 등급이 매겨져 있다.

**요한1서 5:18<sup>33</sup>**: 바로 앞의 구절과 정반대의 변화가 이 구절에서 일어났다. 즉, ἑαυτόν(“자신”)이 αὐτόν(“그”)을 대체한 것이다. 번역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킨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자신을 지킨다”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ὁ γεννηθεὶς ἐκ τοῦ θεοῦ(“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누구인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새로운 본문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즉 신자가 자기 자신을 지키게 된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자기 자신을 지키”의 신학적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지켜주심”에 비해 훨씬 약해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sup>34)</sup> 비

32) [역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

33) [역주]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34) [역주] 우리말에서는 존대법 때문에 ‘난 자’와 ‘나신 자’, ‘지키매’와 ‘지키시매’처럼 표기법 자체로 그 지시 대상이 구별된다(전자는 신자 일반, 후자는 예수님). 새로운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킵니다”(『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처럼 번역해야 한다.

록 새 본문의 독법(ἐκείν)을 지지하는 사본이 대다수이지만 GNT<sup>5</sup>에서 이 독법은 {C} 등급을 받았다.

**유다서 1:5<sup>35</sup>**: NTG<sup>28</sup> 및 GNT<sup>5</sup>에 실린 새로운 비평본문에 의하면, Ἰησοῦς가 이집트에 있었고 사람들을 구원했는데 그는 나중에 그들을 멸망시켰다. 만약 이것인 원본 혹은 “초기 본문”(학자들은 이 용어를 “원본”보다 점점 더 선호한다)이었다면, 필사자들이 그것을 κύριος(“주님”)로 바꾸어야 한다고 느꼈을 법하다. 후자가 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이 구절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Ἰησοῦς는 ‘더 어려운 독법’(lectio difficilior)이 된다. 이 독법은 몇 개의 사본들에 의해 지지를 받는데 그중 바티칸사본(B)이 있다. 다른 몇몇 사본들은 “예수”를 포함하면서 이런저런 변형된 표현들을 가지고 있지만, 바티칸사본(B)에 있는 표현이 바로 <대비평본>과 NTG<sup>28</sup>, GNT<sup>5</sup>의 편집자들이 채택한 본문이다. 결국 이 구절은 기독교론적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구절이 되었다. 한 가지 첨언할 점은, 라틴어역(the Vulgate)은 “예수”라고 번역했지만, 그것을 신라틴어역(the New Vulgate)이 Dominus(“주”)로 바꾸었다는 사실이다. 최근 역본 중 “Jesus”를 채택한 역본은 ESV이다.<sup>36</sup> GNT<sup>5</sup>에서 이 독법은 {C} 등급이 매겨져 있다. 나는 여기서 이 독법에 대해 단지 대략적이고 피상적으로만 설명했는데, 보다 상세한 논의는 이 논문의 목적을 벗어나며 이 논문의 목적은 성서 번역자들에게 그리스어 판본에 일어난 변화를 주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 맺는말

그리스어 비평본문 공동서신 부분 중 열일곱 구절이 달라졌고, 이 변화들은 대체로 번역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그 중 대다수는 신학적 함의를 동반한다. 달라진 부분 중 과반수(아홉 개)가 베드로후서에 있다. 어떤 경우 새 판본 편집자들이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비잔틴 전승을 따랐다. 이렇게 해서 본문 비평가들(특히 “역사비평”을 채택한 이들)이 비잔틴 ‘유형’의 본문에 부정적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의심을 잠재울 수 있게 되었다(그것이 그들의 일차적 목적은 아니었겠지만). 이 논문에서 다룬 대부분 경우가

35) [역주] “...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36) [역주] 한편,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2021)은 이 논문의 저자는 물론 ESV 번역자들도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번역을 제시한다: “...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시켜** 이집트 땅에서 백성을 구원해 내셨지만, 나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없게 버리셨습니다.”

GNT<sup>5</sup>에 {C}등급으로 표시되어 있다. 구절이 원문인지 아닌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만큼 높다고 편집위원회가 판단한 것이다. 나는 논문의 초입에서 전 세계 많은 번역팀들의 경향을 보여 주는 한두 개의 관행들을 언급했다. 이제 나는 여기 논문 말미에서, (적어도 세계성서공회와 함께 하는) 번역팀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추천되는 또 하나의 정책을 덧붙여야 하겠다. UBS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비평장치에 {C} 혹은 {D}등급이 표시될 때, 여러분은 편집자들의 지시(비록 불확실한 지시이긴 하지만)를 따르거나, 아니면 그것을 재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Keywords)

네스틀레 알란트 그리스어 신약성서 제28판, UBS 그리스어 신약성서 제5판, 공동서신, 비평본문과 번역.

Nestle–Aland Novum Testamentum Graece 28th ed., UBS Greek New Testament 5th ed., Catholic Epistles, critical text and translation.

(투고 일자: 2023년 7월 4일, 심사 일자: 2023년 8월 26일, 게재 확정 일자: 2023년 10월 11일)

<참고문헌>(References)

-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 번역, 반포와 권서사업』,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 메츠거, 브루스 M.,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장동수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6.
- Aasgaard, R. “Brothers in Brackets? A Plea for Rethinking the Use of [ ] in NA/UBS”, *JSNT* 26:3 (2004), 301-321.
- Aland, B., et al., eds., *Novum Testamentum Graecum: Editio Critica Maior, vol. 4. Die Katholischen Briefe/Catholic Letters, Part 1*, 2nd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3.
- Aland, B., et al., eds., *Novum Testamentum Graecum: Editio Critica Maior, vol. 3. Die Apostelgeschichte/The Acts of the Apostles*,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7.
- Louw, J. P. and Nida, E.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2 vols, 2nd ed.,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96.
- Metzger, B. M.,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2nd ed., D-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4.
- Westcott, B. F. and Hort, F. J. A., *The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 2 vols, Cambridge: Macmillan and Co., 1881.

<약어>(Abbreviations)

- CEV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1999)
- <대비평본> *Editio Critica Maior* (Aland et al. 2013, 2017, in References)
- ESV English Standard Version (2001, 2016)
- GNT Greek New Testament
- LN Louw and Nida 1996 (in References)
- NTG<sup>26, 27, 28</sup> Nestle-Aland, *Novum Testamentum Graece*, 26th ed. 1979; 27th ed. 1993; 28th ed. 2012
- RSV Revised Standard Version (1952)
- UBS United Bible Societies
- UBS<sup>3, 4, 5</sup> UBS *Greek New Testament*, 3rd ed. 1975; 4th ed. 1993; 5th ed. 2014

<초록>

## 신약성서 최신 그리스어 본문(NTG<sup>28</sup> 및 GNT<sup>5</sup>)이 번역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그리스어 판본인 NTG<sup>28</sup> 및 GNT<sup>5</sup>는 그리스어 신약성서 이전 판본(NTG<sup>27</sup> 및 GNT<sup>4</sup>)과 비교할 때 공동서신에서 서른네 군데에서 달라졌다. 이 변화가 신약성서의 번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논문에서 나는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변화들이 신약성서 번역자들과 개정자들에게 영향을 줄 것임을 보일 것이다.